



제공일 : 2010. 1. 4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
과 장 : 김홍우
사무관 : 류승규
전 화 : 500-1952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0년 1월 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, 화옹·석문·고흥지구 간척지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결정

- 2010년 10ha 규모의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 추진 -

-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조성계획인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과 관련, 지난 12.29 전문가 자문단(위원장: 손정익 서울대 교수) 회의를 개최하여,
 -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옹 간척지구(4공구), 충청남도 당진군 소재 석문 간척지구(816-4번지의외 48필지),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고흥 간척지구 등 3개 지역의 부지를 자문단으로부터 추천받아 우선협상 대상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* 간척지 후보지(5개 지역) : 화옹, 석문, 고흥, 새만금, 영산강지구
- 전문가 자문단은 시설원예 및 간척지 이용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정부 및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고,
 - 5개 후보지에 대해 2010년 착공 가능성, 기후·물류 여건 및 용수·에너지 공급가능성 등 10개 항목을 자체 검토하여 정부측에 우선협상 대상지역으로 추천하였다.

-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지는 첨단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해당지역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.
-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은 정부가 유리온실 조성을 위한 간척지내 인프라를 지원하고,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유리온실 시설사업 투자를 하는 구조로 추진되며,
 - 해당 지자체도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를 위한 부대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부, 지자체, 민간 공동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.
 - 적격 민간사업자는 2010년 3월까지 선정되며, 정부의 인프라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, 민간의 유리온실 시설투자는 2011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.
- 첨단 유리온실 사업은 기존 온실의 영세성과 분산된 입지구조를 극복하고 대규모·집적화를 통해 연중 생산체계를 갖춰 수출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10ha 규모로 추진된다.
 - 또한, 첨단 유리온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열히트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, 친환경 시설자재 등을 사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·시행된다.

첨단 유리온실 조성 시범사업 개요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농식품 100억불 수출실현에 필요한 규모화·집적화된 첨단 유리온실 조성에 앞서 입지가능한 간척지에 시범사업 추진
- 사업기간 : 2010년
- '10년 사업예산 : 106억원(시범모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)
 - ※ 생산온실 및 저온저장고, 선별장, 집하장 등은 민간이 직접투자 건설(380억원)
 - 유리온실(10ha) : 330억원, 저온저장고 등 Packing house(0.6ha) : 50억원
- 사업규모 : 10ha 규모의 시범사업 추진 후, 여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
- 지원조건 : 기반공사(국고 100%), 유리온실 등 생산시설(자부담 100%)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농어촌공사

2. 추진배경

- 가.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으로 수출강국 도약 교두보 마련
- 유리온실 생산품의 해외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시설부족으로 연중생산을 못하고 있어 수출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 - ⇒ 해외 바이어들의 만성적 불만 요인으로 작용
 - *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 점유율(전체 수입액 약 1,200억원)은 약 57%, 파프리카 수요 지속 증가 추세 (파프리카 내수/수출 비율 - 5:5)
 -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로 안정적 수출판로 기반 마련 중
 - 호주와는 금년 8월 파프리카 검역협상 완료, 중국과는 실무협의 완료 단계로 '10년부터 본격적 수출확대 기대

< 파프리카 생산현황('08) >

(단위 : 만톤)

구분	생산	소비	수출
한국	3.3	1.6	1.7
중국	17	피망 등 약200	-
호주	5.8	0.1	5.9

나. 국내 온실시설 현황

- 국내 시설원에 면적은 '90년대 조성이후, '00년부터 정체상태 지속
 - 시설면적(유리+비닐 온실) : ('90) 27천ha → ('00) 55 → ('08) 54
 - * 철골온실 653ha(유리온실 378, 경질판 275), 비닐하우스 52,754ha
 - 시설면적 중 유리온실 면적은 '08년 378ha에 불과하며,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90% 수준

< 해외사례와 비교 검토 >

- ◆ 우리나라 유리온실 규모는 네덜란드 10,374ha의 3% 수준이며, 농가당 면적도 0.7ha로 네덜란드(1.4ha)의 50% 수준
 - ⇒ 최근 네덜란드는 100ha 규모의 온실 Complex 건립 완료('08.2)
 - 친환경적 개발로 정부(인프라 지원)와 민간(1억 4천만유로)이 공동 투자
 - 생산량 : 토마토(한국 230톤/ha↔화란460톤), 파프리카(130톤↔260톤)

⇒ 친환경,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생산·가공·유통을 집적화시켜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 및 경영비 절감 도모

- 생산성 및 품질수준의 향상(화란 대비) : ('07) 70% → ('12) 95%
- 신재생 에너지(경유 대비 1/2~1/5수준) 활용으로 경영비 절감

⇒ 간척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대표적 농업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첨단 산업화

- Sunkist, Dole, Zespri, Greenery 등과 같은 국가 농산물 브랜드 창출
- 국제 수준의 수출농업 조직 육성과 유통 교섭력 강화로 우리농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가수익 모델 창출 필요

3. 기대효과

- (직접효과) 유리온실에서 연간 128억원의 매출 등 농산물 수출증대 기여
 - * 온실 10ha x 285톤/ha(화란의 95%) x 5,000원/kg x 상품화율 90% = 128억원
- (간접효과) 온실관련 시설, 친환경 농자재, 유통·가공산업 등 전후방 산업 입주 및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